

어선 '제2008만선호' 전복사고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해양수산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일 07시 00분경 제주 가파도 남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'2008만선호(33톤)' 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.” 라고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10명 중 8명을 구조하고, 해경 함정 및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4. 3.1.(금) 07시 00분경 제주 가파도 남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'제2008만선호' 가 전복

* 총톤수 33톤, 서귀포 선적, 10명 승선

△ (08시 20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주의” 발령

△ (08시 40분 현재 피해현황) 10명 중 8명 구조, 2명(추정) 실종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윤상훈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손외학 (044-200-5526)